

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지. 이리하여 사랑을 모든 존재의 연결고리로 만들어냈던 자연은, 그 사랑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첫 번째 동인이자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기쁨을 북돋는 원동력으로 삼아 왔던 것일세.

폴은 각국의 자연을 묘사해주는 대신 정치적 분열상만을 소개하는 지리 공부에 큰 흥미를 얻지 못했다네. 역사, 특히 현대사도 그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지. 폴은 역사에서 보편적이고 되풀이되는 불행만을 보았을 뿐,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지. 아무 이유 없이,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일어나는 전쟁들, 불분명한 음모들, 특색 없는 나라들과 몰인정한 왕들. 폴은 이런 것들보다 소설 읽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, 소설이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해관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으니만큼, 때때로 자기가 처한 것과 같은 상황들을 제시해주었던 게지. 그러니 전원생활과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열정을 묘사함에 있어

『텔레마코스의

모험

』만큼 그에게 즐거움을 준 책이 없었네. 폴은 자기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대목들을 어머니와 라 투르 부인에게

---

●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(Scipio Africanus, BC236-183)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. 제2포에니 전쟁 당시 한니발(Hannibal, BC247-183)을 자마에서 격파하고 로마에 승전을 바친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. 훗날 동생 스키피오의 배신과 대(大)카도 일파의 반격으로 실각하고 미술과 문학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다.